



▲ 한상온 대표이사(우)와 김병오 편집국장(좌)이 대담하는 장면

## “정책입안시 환경기술인의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환경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년간 환경기술인 생활을 하다가 10여년전부터 환경산업체인 유한회사 동양환경건설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한상온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사장은 또 현행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다소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23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한상온 사장을 만나 그의 환경관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대담 : 김병오 편집국장

♣ 범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상은 사장님이 바라보는 오늘의 환경관은.

▲ 환경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환경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을 자연생태 환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극한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인문, 사회, 자연환경 전부를 포함합니다. 즉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도 환경이라고 봅니다. 자연생태 환경보호도 결국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환경파괴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환경파괴는 창조주가 창조한 것을 인간의 자유에 맡겨 인간이 좋을 대로 이용할 것을 허용한 데서 출발하였고 또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 자연과 타인을 지배하려고 함으로써 자연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원인도 인간의 본능적 욕망의 표출이며 환경파괴의 가장 극단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아니 미래의 환경관은 정부의 환경정책이나 법적인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디까지나 인간내부의 본질적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자연환경 보호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환경의 주체인 인간에게 눈을 돌리는 환경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환경파괴적 행위에만 엄정한 잣대를 댈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생명에 깃든 파괴적이고 대립적, 차별적인 생명의 경향을 반성해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환경적 본질 회복만이 지구의 미래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디까지나 환경에 대해 기획하고 변화시키고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 사장님은 환경기술인이시면서 (유)동양환경건설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간략히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 저희 회사는 1997년 7월 1일에 종합건설 및 종합 환경을 아우르는 회사로 발전시키고자 방지시설 설계·시공 및 기술컨설팅, 환경성검토 용역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벌써 강산도 한번 변한다는 10돌이 되었군요. 공교롭게도 설립 당일인 7월 1일에 태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시작된 아시아의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도 외환 시장 붕괴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신탁통치」를 받게 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기억됩니다. 이것은 수주액의 저조로 이어졌고 그나마 공사를 완공시켜 놓고도 발주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섬세한 설계, 철저한 시공'이라는 초심을 버리지 않고 애쓴 보람에 이제는 조금은 가벼운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저감분야와 폐기물 처리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지금까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 환경관련 회사를 경영하시다 보면 현행 환경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규제만 가지고는 환경보호의 본질에 이바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과와 단속에 대한 의지표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미래 지향적인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천방안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제시되어야 하고 적극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답습처럼 법안을 만들고 아무 대책 없이

‘위반한 사람을 찾아 범칙금만 부과하면 된다’ 라는 식의 우격다짐식 방안유도는 기업인들을 힘없이 지치게 할 뿐입니다. 이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국민 모두가 - 기업을 포함하여 - 자연스럽게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꽃이 아름다우면 나비와 벌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울 것까지는 없더라도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지키는데 충분히 순응할 수 있는 결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관계법 입안과정부터 현장에서 직접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교육·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을 통해 관련 법안에 대해 용역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의 공청회나 의견수렴은 늦은 감이 있으며 돌이키기에는 시간적, 물리

적 리스크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책에 대한 용역 발주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업종의 현장에 포진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이 직접 동참, 또는 관련단체로 하여금 일정부분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그 용역 결과물은 억제가 아닌 순응친화적 결과물이 될 것이며 이는 진정한 순응을 유도해 해당 정책의 성공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즉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보조하는 방법이나 운전비용중 동력비를 절감해 주는 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자금 제도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또는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인 기업에게 환경정부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방지시설이 아



닌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순응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크린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최대 3천만 원까지 작업환경개선자금을 무상 보조하고 있으며, 먹을 것은 삶의 근원이라는 인식에서 농사용 전기의 경우 산업용 전기료의 50%미만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젠 농업도 친환경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듯이 모든 분야에서 환경은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되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사장님은 현재 민간단체인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호남권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세기에 환경단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연합회 호남권 부회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별다른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환경의 세기' 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그동안 '환경대책' 차원에서의 사고로 출발했다면 금세기엔 '환경경영'으로의 사고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의 역할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정책이나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수동적 비판으로 평가를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정책 연구 초기단계부터 직접 능동적으로 개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전문성을 확보해야함은 물론 그 사고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참여정부에서는 환경부와 건교

부를 통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권고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점이 어떠한 형태로든 현실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통합이 되면 개발계획단계부터 환경적 고찰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순기능적 장점도 있지만 혹여 중요한 검토단계 하나만을 간소화 시켜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합에 적지 않은 환경단체들이 찬성한다는 소식도 접합니다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많아진다고 해서 좋아하기 전에 책임있는 환경단체로서 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새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합회도 환경엔지니어들의 협의체로서 환경기술 실용화의 평가부분 등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환경의 세기에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기침체로 인해 환경산업이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인의 한사람으로서 환경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신다면.

▲ 아주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했어도 환경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개발 적용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 자본력으로 지칭되는 현금유동성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입으로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는 사

①

- ① 2006년 전라북도 환경기술지원단 발대식(제7기)
- ② 2006년 개정 환경관련법 설명회
- ③ 제11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인 체육대회(전북)

②

③

회적 인식은 팽배해 있지만 진작 이러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용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발된 기술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선택되어진 신기술에 대하여 지자체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국가가 먼저 과감하게 적용함으로써 환경산업체에게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환경기술의 적극적 장려와 성장 계획이 없으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환경산업이라는 테마가 국가생존 및 국가경제발전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시장경쟁 원리에만 맡기고 있다가는 환경이라는 목숨과 같은 주제를 고스란히 외국 기업들에게 내주고 말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이겠지요.

❖ 환경기술인의 위상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대책은.

▲ 저도 배출업소에서 4년여 동안 환경기술인으로서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환경기술인들의 어려움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벌죄라고 지칭하고 있는 악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입법 정책 당국에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우리 기술인들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장폐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는 있겠으나 이는 인간에게 가족 생존권을 담보로 옥쇄를 채워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까지 협박하는 비인간적인 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다른 분야 기술자들도 해당 업무 중 중요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과태료로 그치고 있는 것도 법 적용 형평성에서 위배

된다고 봅니다. 직장에서는 생산시설이 아닌 소모적 시설에서 근무한다하여 직급의 승진은 한계적이고 근무 여건 또한 힘들면서 국가적으로는 중요 업무를 담당한다하여 위반행위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고려되지 않고 가장 엄정한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 기술인들에게 사명감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기술인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진정한 순응을 기대한다면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안과 함께 구시대의 유물인 악법은 이제 역사의 뒤로 감출 때가 됐다고 봅니다.

❖ 끝으로 산업현장의 환경기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면.

▲ 제가 대학에서 환경분야에 관심을 보일 때 주변에서의 반응이 기억납니다. 장차 유망한 분야이고 탁월한 선택이라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주설이 없었더라도 저도 희망적으로 생각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작금의 현실과 조건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열악한 여건에서 우리보다 먼저 환경현장에서 애쓰셨던 선배들이 볼 때에는 어떨까요. 그분들의 인내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좋은 영향만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나도 그 누구를 위해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고민하면 어떨까요. 독일출신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물리학자를 하려는 사람은 적다며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고도 거절했다는 글을 읽은 것이 생각납니다. 과학자로서 자긍심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 환경의 주역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주역은 우리 환경기술인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위에 협의회와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애쓰면 우리 미래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배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